

The Future V.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차이

1.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가 분명히 소개되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믿음이 필요할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2.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1) 죄의 파괴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죄'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 짓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이사야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성의 태도가 부족함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도 아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죄'의 파괴력은 대단하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나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나 자신이 파괴되는 순서는 분명하다. 우리는 스스로 파괴할 수 없다. 파괴하는 자가 있다. 요한복음 10:10절에 보면 사탄의 정체를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같은 사탄의 목적은 분명하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은 다른 어떤 선한 의도가 없다. 도둑의 의도는 명확하다. 내가 가진 것을 도둑질한다. 죽인다. 마지막 멸망시키고 파멸시킨다. 사탄은 혼자 움직일 수 없다. '죄'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과 같다. 이에 대한 이해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안다. 사탄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들어가 왕 노릇 하였다.

[로마서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17절의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한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사탄이 우리 안에 왕 노릇 했다는 말은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죄'는 사탄의 자양분이다. 사탄은 '죄'를 먹고산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숙주로 만들어 기생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가? 우리가 파멸될 때까지 사탄은 숙주로 죄인을 사용한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다.

(2) 죄의 결과

죄의 권세는 파괴력이 있다. '두려움', '정죄감', '죄책감', '부끄러움'이 대표적인 죄의 열매이다. 죄를 짓고도 떳떳한 사람은 없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 정죄감,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이코 패스이다). 왜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때문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죄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두렵기 때문이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3) 구약의 제사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구약의 제사이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잡아 죄를 전가시키는 제사가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인지 안다.

죄 있는 상태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죽음을 무릅쓰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구약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

3.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제사가 비교가 된다.

[히브리서 10:11-12]

11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끝이 없는 제사이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개념이다.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서서 제단에서 제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1:6절에 나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주 분명하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0:19-22]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21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2절에 보면 '확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개역개정)'이라 한다. '온전한'이란 뜻은 '증거에 있어서 완전히 확신한다'라는 것이다. '증거'는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완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이다. 어떤 비난도, 어떤 정죄함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말한다. 이것은 19절에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아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죄책감에서 벗어나 수 있게 되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4. 내가 만든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로부터 나오는 신념,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왜 가짜 믿음이 생겨날까? 가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난다.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내가 만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내 신념과 인본주의적 생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이다.